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새고려신문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19년 6월 28일(금) (음력 5월 26일) Пятница 28 июня 2019г. № 25(116842) 1949년 6월 1일 창간 ----- Цена свободная
--	--	--

경인여자대학교 지구촌 사랑나눔 러시아사할린 해외봉사
Kyung-In Women's University International Volunteering Corps
▶기간 : 2019. 06. 25.~2019. 07. 04. ▶주관 : 경인여자대학교 사회공헌센터

▲ 6월 26일(수) 사할린한국교육원에서 중고등 학생들을 위한 한국어 및 한국문화 강연이 시작되었다. 강사는 경인여자대학교 학생 20 명이다. 개강식에서. (관련 기사 7면) (이예식 기자 촬영)

친애하는 여러분!

6월 27일은 러시아 청년의 날입니다.
이날을 맞아 사할린주 정부가 여러분에게 축하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빛나는 청춘의 열정은 새로운 지식을 쉽게 터득하고, 머릿속은 계획과 흥미로운 아이디어들로 가득하며 모든 것들을 성취할 만한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단연코 청년세대는 국가와 사회의 여러 발전을 추진하는 원동력입니다. 사할린과 쿠릴열도에는 재능이 뛰어나고, 목표가 뚜렷하며 적극적인 청년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여러분의 이상은 이미 사할린에서의 삶을 개선시키며, 편안하고, 흥미롭고, 더욱 빛나게 하고 있습니다. 주 정부는 지역 발전을 위한 여러분의 창의적 솔루션들을 늘 지원하겠습니다. 성취한 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용감하게 앞으로 나아가 성공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알레리 리마렌코, 사할린주지사 권한 대행

문 대통령, 오사카서 27일 한중 · 28 한러 정상회담... 비핵화 협력 방안 논의

청와대는 27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오사카를 방문하는 문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기간에 이 같은 양자 정상회담 일정이 예정돼 있다고 26일 밝혔다.

먼저 문 대통령은 27일 일본 오사카에 도착하자마자 오후 5시 30분에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교착 상태인 북미 간 비핵화 대화 재개를 위한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한다. 특히 지난주 북중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방북 결과를 듣고 시 주석과 해법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어 문 대통령은 다음날인 28일 오후 2시 5분에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오후 2시 25분에는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

통령과 각각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 발전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지지를 재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날 오후 10시 45분부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신북방정책의 긴밀한 협력과 북한 비핵화 협상 문제에 대해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아르헨티나 · 네덜란드 · 캐나다 등 3개국 정상과도 구체적 일정을 확정해 회담하기로 했다. 한일 정상회담은 예정돼 있지 않지만 G20 정상회의 기간에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결단이 있으면 바로 진행할 것이라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출처: 이투데이)

단신

사할린주, 올해 의료장비 구입에 27억 루블리를 지출

올해 사할린주 정부는 의료장비 구입을 위해 27억 루블리를 지출한 가운데 병원들이 현대식 장비를 보급하고 있다. 의료기관들이 40개의 폐에 삽입하는 인공호흡기 장비를 공급, 의료진단 장비들도 구입해 보급할 예정이다. 유즈노사할린스크 시병원에는 새로운 MRI 기기를 설치하고, 오하·유즈노쿠릴스크·포로나이스크 병원과 중앙학병원과 주 아동병원에는 컴퓨터단층촬영기를 설치할 예정이다. 또한 치과용 종합 이동 장비를 구입해 보급할 계획이라고 주정부 홍보실이 전했다.

한국-러시아 기술협력 거점 '한러 혁신센터' 문열어

한국과 러시아의 기술 협력과 기업 교류를 위한 장소가 인천 송도에 문을 열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송도 G타워에 '한러 혁신센터'를 마련하고 21일 개소식을 했다고 밝혔다.

작년 6월 열린 한러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기술 기반의 신산업 · 신시장을 창출하기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혁신센터가 마련됐다. 센터는 양국 기업 간 기술협력 및 연구개발(R&D)을 지원하고 교류 활성화를 위한 거점 역할을 맡게 된다.

센터 개소식에는 유영민 장관, 송영길 의원(전 북방경제협력위원장), 허중식 인천시 정무부시장, 원광연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러시아에서는 옥산나 타라센코 경제개발부 차관, 안드레이 쿨릭 주한 러시아 대사, 키릴 올로프 유라시아통합연구센터 상임대표 등이 참여했다고 한국 언론들이 전했다.

사할린, 제2회 <모국의 아침> 전국텔레영화축제 개최

제2회<모국의 아침> 전국 TV영화축제가 23-29일간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개최되었다. 경쟁 프로그램에 12개 시리즈가 오른 가운데 수많은 행사, 공연, 영화 상연이 관객들을 기다렸다. 행사에는 블라지미르 멘쇼브, 블라지미르 스미르노프 등 러시아 명감독이 직접 참여하여 자신의 영화를 관객들에게 소개하기도 했다.

주지사 권한 대행, 홈스크 구역 방문

이번 주에 홈스크 구역을 다녀간 사할린주 알레리 리마렌코 지사 권한대행은 홈스크시의 주요 경제사회 기반시설을 시찰하고 지방 주민들과 만남에서 의료 상황과 도로 및 주택 건설, 공공경리 등에 대한 질문에 답변했다. 리마렌코 권한 대행은 2020년에 홈스크에 400석의 신설 학교 건축을 시작하고, 2019-2020년에는 홈스크, 체호브, 코스트롭스코예에 체육관 건설 계획을 언급했다. 지사 대행은 홈스크구역 코스트롭스코예 마을에서는 노후 주택에서 새 아파트로 입주하는 16세대들에게 축하했다.

새고려신문

2019년 하반기 신문주문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19년 하반기 새고려신문 구독을 할수 있음을 알려드리고 앞으로도 사할린 한민족지를 애독하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6개월 구독료는 497루블리 10코페이카입니다. 신문은 사할린 모든 우체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문 인덱스는 ПР575입니다.
(본사 편집부)

26회 사할린동포희생자 추념 행사

용서는 하되 절대로 잊지는 말아야 한다

지난 26일(수) 오전 11시 비가 조금씩 내리오는데도 불구하고 한인문화센터앞 사할린 동포 희생자 위령비와 사할린한인이중징용 광부피해자추모비 앞에서 제 26회 사할린 동포 희생자 추념 행사가 진행되었다. 이 행사는 사할린동포희생자 위령비 건립부터 오늘날 까지 해외희생동포추념사업회(회장 이용택)가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행사 진행은 사할린 주한인협회 김종길 부회장과 해외희생동포추념사업회(한국) 서원열 부회장이 맡았다.

추념사를 한 사할린 주한인협회 박순옥 회장은 고향땅을 밟지 못하고 돌아가신 조상의 영령들의 명복을 빌고 추념행사를 하기 위해 해마다 사할린을 찾은 이용택 해외희생동포추념사업회 회장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처음 30여년 전에 사할린을 방문했던 이용택 회장은 다음과 같이 연설했다.

"저희들이 사할린에서 추념행사를 봉행 한 지도 26년이 되었습니다.

일본제국은 1923년 9월 1일 11시 58분 일본의 관동지역에 진도 7.9의 대지진이 발생 하였는데 이 지진으로 일본인들의 동요와 집단 항의가 일어날 것을 우려해 일본제국은 경찰관만으로 진압하기 어려울 것을 예상해 군대를 동원하고, 민간인들로 하여금 자경단을 만들어 조선인들이 폭동과 방화 그리고 우물에 독을 넣었다는 유언비어를 퍼트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니 모든 일본인들은 조선인들에게 악감정을 가지게 되었고 심지어 죽이라고 소리를 지르며 부모들이 보는 앞에서 어린이들을 처형하고, 살아있는 조선인들의 팔을 톱으로 잘라 죽였다고도 합니다.

이는 우리 한국인 동포들의 증언이 아니라 일본의 "절" 관음사 주지인 세끼 씨와 영화감독인 구로자와 아키라 라는 일본인들의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땅 사할린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제국이 태평양전쟁에서 패망하자 사할린 주 포자르스스코예에서 일본인들이 우리 동포들을 27명이나 학살하지 않았습니까?

(8면에 계속)

국제학술회의

<사할린 한인을 위한 평화와 연대> 주제로

지난 26일(수) 유즈노사할린스크시 가가린호텔 컨퍼런스실에서 한국 한림대학교와 사할린국립대학교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제7회 2019 시베리아연구 국제학술회의가 진행되었다. 이에 한림대 대표단 8명과 사할린 현지인 4명이 발표에 참가했다.

한림대 러시아연구소는 올해 3.1 운동 100주년을 맞이하여, 2014년부터 사할린 한

인의 권익 회복을 위하여 매년 개최하던 시베리아연구 국제학술대회를 한국, 러시아, 일본의 평화와 연대를 위한 국제적인 학술교류의 장으로 삼기로 했다. 사할린국립대와 한림대학교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 학술대회는 격년으로 한국과 사할린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번 제 7회 학술대회의 주제는 <3.1 운동 100주년 기념 사할린 한인을 위한 평화와 연대>다.

한림대학교 러시아연구소 최태강 소장에 따르면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한림대 일본학연구소와 함께 19-20세기 사할린 섬에 대한 러시아 제국과 일제의 식민화 정책의 맥락에서 사할린 한인 디아스포라의 역사를 고찰하고 이들의 권익 회복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했다고 했다.

한림대의 최태강 러시아연구소 소장와 서정완 일본연구소 소장의 개회사, 사할린국립대 도건식 학장의 개회사로 시작된 학술회는 3개 패널 섹션으로 이어졌다.

첫째, <사할린 한인의 과거 현재 미래>에는 박

봉수 디아스포라연구소 소장(한국)은 <사할린이 산가족회의 태동에 관한 탐색적 연구>란 주제로, 배 외토리아 새고려신문사 사장은 <새고려신문의 70주년 역사: 사할린 한인 이주역사의 맥락에서 본 사할린 한인 신문의 역사>, 사할린주향토박물관 김영희 보관장은 <사할린주향토박물관에 소장된 사할린 한인들의 생활용품과 전통문화용품 연구>주제로 발표했다.

둘째 패널은<제국과 포스트제국의 사람의 이동과 기억: 가라후토와 사할린>이란 제목으로 진행되었는데 한림대학교 러시아연구소 이경완 연구원, 사할린주향토박물관 진 율리아 선임연구원, 한림대 일본연구소 조형근 연구원, 한림대 정치행정학과 이삼성 교수가 발표하여 체호브의 <사할린 섬>책의 연구, 동아시아 국제질서와 일본 역사 문제의 구조, 사할린 경제개발 특성(19세기 말-20세기전반기), 사할린동포귀환 연구 등 문제를 분석했다.

셋째패널에는 <사할린 주의 지속가능한 사회경제 발전>에 5명이 발표했다. 도건식 사할린 국립대학교 법경제대학 학장 법경제대학 학장, 한림대 최태강 러시아연구소 소장·바딤 슬랩첸코 연구원·원석범 연구원, 김영순 사할린기업지원기금 창업보육센터장은 사할린과 쿠릴에서의 경제발전 현황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사할린 한인 연구로 잘 알려진 아나톨리 쿠진 교수는 이날 발표내용에 큰 관심을 갖고 특히 <쿠릴열도에서의 일러 협력: 공동경제활동과 평화조약>발제에 관심이 남달랐다.

이날 도건식 학장은 "한림대학교 러시아연구소와 사할린국립대학교 법률·경제 및 경영대학과의 협력은 5년 이상 지속되고 있습니다. 협력의 영역 내에서 사할린과 한국에서 국제학술회가 개최되어 학술회의 발표논문집 출간과 연구자 교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학술회의가 양 지역의 우호와 협력에 기여하여 러시아와 한국의 번영을 위한 민족 간의 이해와 조화를 강화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라는 견해를 밝혔다.

사실 사할린 경제와 특히 사할린 한인 동포문제를 다루는 학술회의인 만큼 이 대회에 보다 더 많은 현지 동포사회계 대표들이 참석했으면 했다.

(본사 기자)
(이에식 기자 촬영)

이 모 저 모

(7면에 계속)

사할린 주민, 곰의 습격을 피해 나무에 올랐으나 따라가 주민의 발을 끌어내리는 곰

사할린 노글리키 구역에서 낚시꾼이 곰과 마주쳤으나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졌다. 나무에 오른 남성을 곰이 발로 끌어내리려하자 이 남성은 강으로 뛰어들어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갔다고 사할린주 수렵·산림부가 소식을 전했다. 사람으로서 끔찍한 비극적 사고가 일어날 수 있었던 곰과의 조우는 지난 주말에 발생했다. 노글리키 구역 다기강가에서 낚시를 하던 이 남성은 두드러지게 먹이감을 찾던 젊은 곰과 마주치게 되었다. 이 주민은 곰을 피해 나무 위로 급히 올랐으나 곰이 그의 뒤를 따라붙을 거라 예상치 못했다. 곰이 나무에 오른 남성을 발로 끌어내리려하자 그는 바닥으로 떨어져 부상을 입고 피를 흘리며 강으로 뛰어들어 떠내려가다 강 수비대에 발견되어 구조되었다. 부상을 입고 충격에 빠진 주민은 급히 응급진료소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산림부 직원들은 곰과 조우한 장소를 조사하고 주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곰을 포획할 것인지 결정하는 일이 남았다.

Сахалинец попытался спастись от медведя на дереве, но хищник стянул его за ногу

Чудом выжил столкнувшийся с медведем рыбак в Ногликском районе Сахалина. После того как косопалый за ногу стянул его с дерева, островитянин бросился в реку и добрался до людей, рассказали в министерстве лесного и охотничьего хозяй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

ласти.

Встреча, которая имела все шансы завершиться трагически для человека, произошла в конце минувшей недели. Рыбачивший на реке Даги в Ногликском районе мужчина увидел молодого медведя, который явно проявлял к нему гастрономический интерес.

Рыбак попытался скрыться от косопалого на дереве, но не учел, что медведи отлично по ним лазят. В итоге хищник за ногу стянул человека с дерева и тот упал на землю. Но адреналин в крови дал силы раненому рыбаку убежать и броситься в реку, где его и заметили сотрудники рыбоохраны. Пострадавшего перепуганного сахалинца привезли на станцию скорой помощи, где его раны перевязали.

Место встречи обследовали лесники. Им предстоит решить, представляет ли хищник опасность для людей и следует ли его застрелить.

조상의 묘를 찾아 쿠릴섬에 도착한 고령의 일본인 배에서 내려오지 못했다

24일 (월) 조상의 묘에 참배차 일본 방문대표단이 쿠쉬나르섬을 찾았다. 유즈노쿠릴스크구역 지방 정부에 따르면 방문단은 고령의 일본인들이 많았다. 일본 방문단은 자유방문프로그램으로 쿠쉬나르섬에서 2박 3일을 머무르며 이전의 일본인 마을과 조상의 묘지를 탐방하고, 메드베지곶과 로가초브, 페트로브, 폭포가 있는 곳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 대표단에는 일본 6개 구의 주민 48명으로 구성되었는데 대부분이 인근 홋카이도섬의 네무로구 주민들이고 그중 35명의 연령은 65세-80세, 10명은 80세-90세, 3명은 94세 정도의 고령자들이다. 이들의 방문은 깊은 정서적인 체험을 위한 방문이다. 그런데 이 중 한 명이 고령에 건강 상태가 안 좋아 하선을 못 했다고 시청 측이 덧붙였다.

1992년부터 쿠릴열도인 쿠나쉬르, 쉬코탄, 이투

루프섬 주민들과 일본 주민들을 위해 무비자 방문이 시행되고 있다. 26년간 러시아의 섬들에 일본인이 25000명이 방문했고, 러시아 국민 11000명은 일본을 답방했다. 방문은 학술, 의료, 아동 대표단 등 여러 방면에서 이뤄지고 있다.

Старик-японец прибыл на Курилы к могилам предков и не смог сойти на берег

Очередная делегация японских граждан прибыла на остров Кунашир, чтобы навестить могилы предков. Как рассказали в администрации Южно-Курильского района, в ней было много японцев преклонного возраста. Один из делегатов переволновался и не смог сойти на берег.

На Кунашире японцы провели двое суток. У них программа так называемого свободного посещения островов. Они проехали по местам, где раньше были японские поселения, посетили старые захоронения. Также побывали на водопадах, на мысах Медведь, Рогачева и Петрова.

В составе этой делегации — 48 жителей шести префектур Японии, большинство — из округа Немуро на соседнем острове Хоккайдо. Все они уже в годах. 35 человек — в возрасте от 65 до 80 лет, десять — от 80 до 90 лет, а троем уже по 94 года. Такие поездки для многих — серьезное эмоциональное испытание.

— Один гражданин не смог сойти на берег с борта судна «Этопирика» в силу возраста и плохого самочувствия, — добавили в мэрии.

Безвизовые поездки для жителей Японии и Курильских островов Кунашир, Шикотан и Итуруп проводятся с 1992 года. За 26 лет на российских островах побывало свыше 25 тысяч японцев, а ответные визиты нанесли примерно 11 тысяч российских граждан. У поездок есть несколько направлений, в том числе формируются научные, медицинские и детские делегации.

(7면에 계속)

새고려신문 창간 70주년 문예콩쿠르

우수 수상자 이 잔나 블라지미롭나 저자 소개

1968년에 사할린주 우글레고르스크시에서 출생, 1990년 우즈베키스탄 타쉬켄트 니사미 명칭 사범대학 러시아어 및 한국어학과 졸업, 1993년 극동인재센터 경영대학 사회학과 졸업, 2004-2008년 극동국립 인문대학원 교육학 전공, 2010년 준박사 학위 따냄.

하바롭스크 중학교 노어 교사, 동양상업대학교 한국어 교사, 태평양 국립 대학교 노어학과 러시아어 교사 (유학생을 위한), 하바롭스크국립 경법대 국제경제관계학과 외국어 및 문화교류 강좌, 한국어 교사 등 역임.

현재: 태평양국립대학교 언어번역학및 국제문화 교류학과 한국어교사.



사람마다 가슴 속에 섬세한 자기 민족의 초상화가 들어 있다

이 잔나

이 블라지미르 니콜라에위츠, 연해주, 페르네이 구역, 뿔라스툰촌, 1933년, 5월 4일 출생함. 러시아 명예 교육가, 화가, 노동노병, 역사와 미술 교원으로 하바로프스크 꺠뿔리테크니체스키이 리체이꺠 중학교에서 근무, 교육 노동 년한은 56년, 현재 연금생활을 하고 계시며, 86주년 탄생을 맞이하여 아버님께 드리는 글입니다.

사람이란 이성만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 창조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무능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태어나기 전에 자연은 사람에게 소질의 씨를 넣어줍니다. 소질의 씨가 싹이 터서 자라나겠는가, 어떤 열매의 수확을 주겠는가에는 생활의 환경, 부모님과 선생님께 달렸습니다. 훌륭한 사람이라면 좋은 부모나 선생님께서부터라고 공언히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창작 활동이란 반드시 좋고, 따뜻한 환경 속에서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역경 속에서도 생길 수가 있다고 봅니다. 마치 꽃이 아스팔트를 뚫고 햇빛을 받으려고 길을 찾는 것처럼 말입니다.

저의 조부모님 (祖父父母 할아버지와 할머니) 은 항상 저의 아버지가 그림을 그리는 것을 반대하셨습니다. 조부모(祖父父母)님은 그림을 그리는 것은 신중성이 없는 일이라고 간주하시고, 이에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차라리 수학이나 특히, 노어와 노문학을 열심히 배우며 공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 조부모님은 무엇이 더 나은지 모르셨으며, 언제나 집에서는 한국말만 해야 했습니다. 당시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직장에 나가시기만 하면, 10살이었던 어린 저의 아버지는(월로자) 비밀스런 구석에서 색연필과 수채화 물감을 꺼내어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혼자서 그리고 다음에는 취미를 다른 학생들과 나누었습니다. 남자에들은 대부분 비행기, 탱크, 군사 기술들을 그렸지만, 10살이었던 저의 아버지(월로자)는 자연 풍경을 그리기를 좋아하셨고, 특히 진 펄밭의 갈대나무, 버드나무, 백양나무, 드물게 과일 나무들을 그리셨습니다. 그러나 어린 시절의 기억은 영다른 자연의 모습으로 남겨졌습니다.

그것은 연해주, 페르네이 구역, 뿔라스툰 어촌의 자연, 푸른 산, 부드러운 푸른 나무가지가 우거진 잣나무, 하늘색 바다. 깨끗한 모래밭으로 형성된 바닷가 해안, 풍경이 아름다운 절벽 등 이 모든 아름다운 자연의 흔적이 깊이 남아있었습니다.

연해주에 첫 이주민들이 나타난 것은 19세기 후반이었습니다. 그중 저의 할아버님(이(李)영식 Ли Ён Сик)은 아버지와 더 나은 생활을 찾기 위하여 여러 사람들과 같이 연해주로 이주해왔습니다. 그후 할아버님은 러시아 국적을 받으시고 러시아 이름으로 니 니콜라이 (Ни Николай) 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할아버님은 그 당시 생선 가공공장에서 직쟁반장으로 근무하셨으며, 거기에서 작업을 하고 계셨던 저의 할머니 최 총렬 (최 崔 Цой Татьяна) 을 만나 연애결혼을 하셨습니다.

1933년에 첫 아이로 저의 아버지 이 블라지미르 니콜라에위치가 태어나셨고, 1년 후 태어난 고모를 이 나제즈다라고 불렀습니다. 기쁨으로 소비에트 시민권을 받으신 할아버님과 할머니는 얼마 지나지 않아 무자비한 처지를 당하게 되셨습니다.

1937년 가을에 남녀노소 (男女老少) 고려인들이 정착한 연해주에서 강제 추방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가족을 싣고 다니던 난방화차에 강제로 실려 떠나면

중앙아시아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열차가 가는 동안 아이들이 앓고, 갓난 아이들은 태어나자마자 죽고,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소리 없이 숨을 거두었습니다.

3개월간 난방차가 가는 도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숨졌는지 그 누가 알겠습니까?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은 석달 후에 더운 우즈베키스탄에 실려왔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에 의하면, 사람들을 짐승처럼 벌판에 부려놓았답니다. 온화한 기후 조건에서 살다가 갑자기 뜨거운 +45도가 오르내리는 온도에 돌보다 더 굳은 진펄 밭과 모기가 가득한 들판에 사람들을 내려놓아 어른들과 아이들은 적응조차 못 하고 앓으며 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버려진 고려인들은 살기 위하여 움직였고, 토굴집들을 만들고,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1938년에 아버님의 가족에 또 불행이 닥쳐왔습니다. 저의 할아버님이 탄압을 당했습니다. 이유는 언젠가 친구 앞에서 다음과 같은 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들을 이 중앙아시아로 실어온 것은 불공정한 사실이다. 왜,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며 살아야 하는가?"라는 말을 하자 이 말을 들은 친구가 송사하여 '인민의 원수'라하며 아무런 흔적도 없이 할아버님을 끌고갔습니다. '인민의 원수'가 된 가족은 끌호즈(협동조합)에서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했고, 할머니는 어느 일터에서도 취직을 하지 못 하게 했습니다. 한 달 동안 가족은 쌀 한 킬로그램도 받지 못하고, 식구들은 굶고 있었습니다. 아는 사람, 친한 사람, 모두가 무서워서 동정하지도 못했습니다. 한 달 후에 고모이신 아버지의 여동생이 죽고, 아버지가 앓기 시작하니, 우리 할머니는 하나 남은 아들을 살리기 위하여,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깨끗한 페이지 (새로운 시작)'로 생활을 시작하려고 굳게 마음을 잡수시고 떠나셨습니다.

56년이 지나서야 할아버님 이영식 (니 니콜라이) 을 정치적 동기로 근거 없이 탄압한 것에 대한 명예회복해주리라 누가 알았겠는가?

할머니께서 아들을 데리고 아무도 모르는 데로 찾아간 곳은 <뿔라르나야 스웨스타 (북극성)>이라는 끌호즈였습니다. 거기에서 행운을 만나 일을 아주 열심히 하고 계셨던 트랙터 운전수 한덕춘 씨과 재혼하시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많은 노력을 한 한덕춘 씨는 <사회주의 노동영웅>이라는 칭호와 레닌 훈장을 받으셨습니다.

아버지는 아무리 조부모님이 그림 그리는 것을 반대하셨어도 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타쉬켄트 뽀.뽀.뽀브 명칭 미술전문 학교 조각과에 당당히 입학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그 미술 전문학교를 졸업하지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1957년에 온 가족이 사할린으로 이주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블라지미르 선생은 사할린주, 아니와시 조선 7년제 학교에 공산소년단원 지도자, 미술교원으로 취직했습니다. 이렇게 아버지는 교원의 길을 걷기 시작하셨습니다.

1968년에 아버지는 유즈노-사할린스크 사범대학 역사과를 졸업하시고, 모스크바 인민예술창작대학도 졸업하셨습니다. 그후 사할린주 우글레고르스크시 제 5호 중학교에서 역사, 제도학, 미술을 학생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아버지는 주, 시, 구역 교원들의 회화와 조각 전람회에 참가하시고, 우수상을 받으시며, 모스크바에서 진행하던 제 2차 전 러시아 인민창작축제에서 수상하셨습니다.

(계속)

사할린주 한인이산가족회 창립 30주년

사할린 한인 동포 이산가족은 일제가 만들었습니다

제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은 한반도 남부지방에서 한인 젊은 청년들을 당시 일본 영토였던 남화태(남사할린)로 강제로 끌고와 탄광에서 힘든 노동을 하게 하였습니다. 강제노동을 못 견디어 죽은 사람들이 그 얼마입니까? 그리고 또 다시 화태에서 일본 규슈로 강제로 끌고가 이중징용의 강제노동을 당해 행방불명의 운명을 겪은 그 사람들의 생사를 누구한테 물어야 합니까? 또 일제 당시 강제노동으로 징용을 당한 노동자들의 월급을 지불하지 않고 저금을 강요하고, 이제는 그 우편저금을 영원히 묻어놓고 그들에게 돌려주지 않으며 다 죽어가기를 기다리고, 그들의 자손들마저 죽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1945년 8월 15일 조국의 광복과 함께 남화태도 소련 붉은 군대에 의해 해방되었습니다.

강제징용된 사할린 동포 젊은이들은 해방이 되었다고, 이제는 고향에 돌아가서 부모 처자들을 만나 살게 됐다고 기뻐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기쁨은 얼마 못 갔습니다. 1946년부터 일본인들의 귀환이 시작되었지만, 조선인(한인)만은 버려져 고향으로 못 가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기막힌 일입니다. 일제 침략자들은 귀국하게 되었고, 아무 죄없이 끌려온 한인들은 다시 억류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산가족이 생겼던 것입니다.

억류된 사할린 한인 동포들은 편지도 못 받아보고, 편지를 써 보낼수도 없었고, 라디오도 마음대로 듣지 못하고, 부모 처자를 영원히 만날 수도 없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소련의 개방과 함께 사할린 한인 동포들의 생활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1988년 한국 서울에서의 세계 올림픽 경기에 소련 혼성팀이 참가하고, 그해 사할린 각 지방에서 8.15광복절 행사가 진행되고, 그해부터 여러 사할린 학교에서 한국어 교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나도 토마리 학교에서 한국어 교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마다 협의회가 조직되었습니다. 나는 토마리시 한인주민들과의 사업협의회 회장으로 선거되었습니다.

다음 해 1989년 6월,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에 주 한인이산가족회 전전물 회의실에서 주 한인이산가족회 첫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주 이산가족협회에는 뜻을 같이하는 서운준 씨, 이수진 씨, 고 박동철 씨, 전수문 씨, 김명열 씨, 김순희 씨 등으로 결성되었고, 회장으로 서운준 씨가 선출되었습니다.

그때 이산가족회는 유일한 사회단체로서 사할린 동포들의 이산가족찾기부터 사업을 시작하면서 일본에서 친척상봉이 시작되었습니다.

1990년부터 사할린 동포들의 연고자 친척방문, 무연고자 모국방문, 부모가 사망한 2세들 모국방문, 동반자와 함께하는 1세들의 모국방문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주 이산가족협회는 주 한인회와 함께 사업 초부터 일본 정부와 한국 정부를 상대로 강제징용 사할린 동포들의 영주귀국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드디어 꿈에도 그리던 영주귀국, 1998년에 처음으로 100세대가 영주귀국을 했고, 2000년부터는 안산 “고향마을”로 사할린 동포 1세 노인들 500세대의 영주귀국사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주 이산가족협회는 처음부터 사할린 각 지방에 있는 이산가족회 담당자들과 함께 사업을 추진해가고 있었습니다.

인천 복지관, 대창 양로원 등에 입원 사업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에 인천으로 650명에 이어 2008년에는 한국의 여러 지역 아산, 천안, 청원, 화성, 부산, 2009년에는 김포시,원주, 음성, 파주,제천, 서천 등지로 영주귀국하였습니다. 다음 2010년, 2011년에 이어 김포시 숄터마을, 파주시 등 지역으로 영주귀국이 실시되었습니다.

아직까지도 영주귀국 사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현재 주한인협회 박순옥 회장은 이산가족회 창립 초부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산가족협회에서 일하셨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젊은 나이에 이산가족회에 오셔서 사할린 1세 노인들을 위하여 꾸준히 일하고 있습니다.

주이산가족회 창립 30돌을 맞이하면서, 주이산가족회 박경춘 회장을 비롯 전 직원 여러분, 각 지역 이산가족회 담당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의 사업에서 큰 성과가 있으며 건강하시고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중심으로 기원합니다.

토마리시 전 한인회 회장,
전 이산가족회 담당자
현재 김포시 영주귀국 사할린 동포
허 남 훈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МЕЖДУНАРОДНЫЙ СИМПОЗИУМ

В городе Иксан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состоялся международный симпозиум. Организатором его проведения стал Институт гуманитарных и социальных исследований Северо-Восточной Азии университета Вонкванг совместно с Национальным фондом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 центре внимания была тема: «Воспоминания и перспективы Северо-Восточного Азиат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воображение за пределами границ». В обсуждении участвовали ученые Японии, Тайваня, России и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Через призму центральной темы обсуждались проблемы положения тайванцев в Манчжурии в период японской колонизации, жизнедеятельности сообщества японских иммигрантов, этнических корейско-китайских общин в рамках глобальной цивилизационной ориентации.

Большой интерес вызвал доклад профессора Сахалинского института железнодорожного транспорта, доктора исторических наук А.Т. Кузина, рассказавшего историческую правду о советско-японском пограничном конфликте в районе озера Хасан летом 1938 г.

Не остались забытыми и проблемы послевоенного устройства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Почему правительство Японии завезло корейцев на Южный Сахалин? Сколько осталось корейцев на Сахалине после войны и почему они не были репатриированы? Кто несё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ь за невозвращение японизированных корейцев на историческую родину предков? Почему им не было выдано никаких денежных компенсаций при заключении японо-корейского соглашения в 1965 году? Почему пилотные проекты запоздалой репатриации не предусматривали их возвращение вместе с детьми? Ответы профессора А.Т. Кузина на поступившие вопросы вызвали такой интерес, что была признана целесообразность обсудить проблемы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на специальном симпозиуме.

Все выступающие были единодушны в том, что ученые уже немало сделали для изучения процессов мирового порядка и что Северо-Восточная Азия представляет собой пространство, как особая зона общего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для дальнейшего укрепления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мира с учетом региональных исторических, транснациональных, культурных, социальных особенностей. Для современной Северо-Восточной Азии, где до сих пор сохраняются травмы Второй мировой войны, работа симпозиума стала еще одним шагом на пути укрепления мира и международной солидарности в регионе.

Организатору симпозиума - Институту гуманитарных и социальных исследований Северо-Восточной Азии в лице его директора Ём Сын Джун была выражена всеобщая благодарность за умелую организацию форума и за теплый прием.

Г. ЛАРИНА

Конкурс эссе в честь 70-летия газеты "Сэ коре синмун"

Призер конкурса эссе (лауреат премии 3-й степени).

Пак Александр (1989 г. р.). В 2006 г. окончил гимназию № 2 г.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Получил высшее образование в ДВГУ по специальности юриспруденция. В данный момент работает в АО "НИПИГАЗ" (Москва) менеджером управления контрактами. Женат. Эссе "Поездка в Корею" было написано Александром в возрасте 16 лет.



Поездка в Корею

Встреча

Вновь я слышу звучание путеводной ноты. Мнемозина, богиня памяти и мать всех муз, предстаёт перед моим взором, готовая помочь собрать разрозненные кусочки воспоминаний в единую картину. Автобус, заполненный уставшими детьми, давно покинув пределы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аэропорта Инчон, движется по направлению к Ансану. Затянувшееся путешествие запечатлелось в моем сознании лишь огнями большого города: ослепительное сияние домов и небоскребов, яркий свет неоновых огней бесчисленных вывесок и реклам, разнообразные блики беспрерывно движущейся транспортной колонны.

Первый восторженный трепет, вызванный необъятным городом, постепенно угасает и Саша медленно засыпает...

«Саша, проснись! Проснись же наконец-то, соня!» - Досадная помеха разбивает сладкую иллюзию сознания и переносит мальчугана в новую, красочную и, что самое главное, реальную... Немного посапывая, Саша устремляет свой взгляд в окно. Еще никогда ему не приходилось видеть так много бабушек и дедушек, плотной группой разместившихся на автобусной остановке и покорно ждущих своих внуков и внучек.

Осторожно, стараясь никому не помешать и никого не задеть, Саша выходит из автобуса и попадает в замкнутый круг, образованный незнакомыми людьми, из которого нет выхода. Его, подхваченного людским потоком, несет к жилому комплексу, ставшим новым пристанищем для изрядно настрадавшихся стариков, которые наконец обрели заслуженный покой. Вспоминая, я отчетливо помню радость, которая охватила нас тогда:

«Настя, а ведь хорошо-то как!» - выговорил Саша.

«Да, да!.. Сейчас мы с тобой пойдем к бабушке Ане. Посидим, оставим вещи, которые просили передать ей наши, затем я оставлю тебя у неё, а сама навещу мою бабушку Соню», - объявила она и спорить с ней не было ни смысла, ни желания.

Район, в котором жили старики, состоял из десятиэтажных зданий, расположенных по периметру и тем самым создавших свой небольшой, но особенный мир, где располагались разнообразные магазины и учреждения, удовлетворяющих нужды и пожелания стариков. В моей жизни было не очень много ярких впечатлений и потому те, что есть у меня, особенно дороги мне. В том, особенном месте, мне показалось, что я увидел физическое воплощение земного рая. Стоило только выйти из «нашего района», как в суете городской жизни Ансана исчезал мой земной рай, но возвращаясь обратно, я вновь погружался в место невиданного мной покоя, где жизнь проходила с меньшим смятением и всем телом своим я мог чувствовать каждый удар своего сердца. Тогда я еще был слишком мал, чтобы выразить поглотившие меня впечатления на бумаге и передать их своему читателю, как могу сделать это сейчас.

Детская жизнь прекрасна! Поэтому балуйте своих детей, когда они будут у вас, создайте для них их собственный земной рай, ибо мы даже не представляем, что их может ждать в обманчивом будущем. Я вырос и чувствую, как вокруг меня посте-

пенно воздвигаются могучие, непроницаемые стены, которые ограждают меня от незваных гостей, безумцев, решивших покопаться в моей душе. В моём отказе полностью интегрироваться в общество сверстников, я вижу свои старания найти, пусть небольшой, луч личного среди безличной тьмы, с которой, в зрелом возрасте, рядовой обыватель свыкается и с равнодушием относится к черным пустотам своего существования, что кажутся ему жизнью. Моя башня из слоновой кости как никогда могуча и крепка, и будет стоять до тех пор, пока не придет мое время. В настоящем, выработанный модус вивенди с внешним миром меня вполне устраивает.

«Ой, бабушка! До чего же у тебя классно!» - Саша был потрясен изящностью и простотой квартиры, ему не верилось, что он будет жить в этом необычном месте. Бабушка же просто улыбалась, ибо ей приятно видеть столь сильно подросших внука и внучку. Она говорила что-то на корейском, но Саша понимал её без слов, ибо язык эмоций один общий и единый на всем свете.

Саша, томимый желанием окунуться в неведомое путешествие, Настя, девушка строгая и требовательная и бабушка провели вечер в воспоминаниях и беседах о родных. Затем, когда часы «пробили» одиннадцать, сестра попрощалась с бабушкой, дала последние наставления своему непоседливому брату и отправилась к родным, гостем которых она стала на целый месяц.

Вся моя жизнь в Корее представляется мне как чудесное, мимолетное впечатление, которое было схвачено любопытным отроком и спрятано в глубинах его памяти, чтобы затем вновь ожить и засиять необычными красками и лучами счастливого прошлого. Случается, что мы, твердо уверенные в том, что прошлое закреплено памятью навеки и цветет в садах Мнемозины, готовое всегда предстать перед нами, на самом деле оказывается лишь развалинами, обугленными, тлеющими пнями, уже несуществующего воспоминания. Я чувствую, как данный недуг поражает и меня, постепенно расплываясь по всему, что дорого было мне. Такова неизбежная мука существования - человеческая слабость и беспомощность.

Когда Саша в первый раз увидел свою комнату, его поразили особая чистота и ухоженность. Ему была выделена двухместная кровать, своя гардеробная, в которой обнаружилось несколько бабушкиных вещей, а также тумбочка, на которой располагалась настольная лампа, которая освещала ему страницы книг, что он читал ночами. Но, честно признаться, такое происходило не часто. Не было в этой комнате и письменного стола, который пригодился бы Саше, когда он готовил домашнее задание на лето, щедро раздаренное учителями.

Как это бывает с нами, проведя насыщенный день, мы, утомленные, со сладостным вздохом ложимся в свою кровать и засыпаем как-то необыкновенно быстро, так и Саша быстро уснул в своей кровати. Бабушка же в это время смотрела кино по телевизору, из которого непривычное звучание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сливалось с чем-то непонятным, но в то же время чувственным и расслабляющим.

(Продолжение следует)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реклама

Тел.: 50-00-50;
43-31-31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е синмун"! Поддержи национальную газету!

Продолжается подписка на 2-е полугодие 2019 года.

Только у нас самые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новости из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за 6 месяцев: 497 руб. 10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ПР575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Президент США Дональд Трамп посетит Сеул 29-30 июня

Президент США Дональд Трамп посетит РК с официальным визитом 29-30 июня. Южнокорейско-американский саммит намечен на 30 июня.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а в понедельник на брифинге представитель администрации президента РК Ко Мин Чжон. Это будет второй по счёту визит Дональда Трампа в Сеул. Предыдущий саммит РК-США состоялся в апреле этого года. По словам Ким Мин Чжона, предстоящий приезд американского президента связан с приглашением Мун Чжэ Ина, которое было озвучено в апреле, в ходе последней встречи сторон в США. Лидеры двух стран обсудят вопросы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в деле налаживания режима мира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путём полной денуклеаризации Севера. После саммита Дональд Трамп вылетит в США с американской авиабазы Осан в районе города Пхёнхэ-ка провинции Кёнгидо. Программа визита обсуждается.

Ли До Хун: июнь-сентябрь - важный период для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20 июня на встрече с журналистами спецпредставитель РК по вопросам мира и безопасности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Ли До Хун, находящийся с визитом в Вашингтоне, заявил о важности периода с июня по сентябрь в решении ядерной проблемы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По его словам, визит председателя КНР Си Цзиньпина в Пхеньян, личное письмо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го лидера Ким Чон Ына американскому президенту Дональду Трампу и соболезнования главы КНДР по поводу кончины бывшей первой леди, вдовы экс-президента РК Ким Дэ Чжуна Ли Хи Хо свидетельствуют о развитии ситуации в лучшую сторону. При этом, он отметил, что пока рано говорить о том, будет ли нынешняя тенденция иметь продолжение в виде возобновления рабочих переговоров между Пхеньяном, Сеулом и Вашингтоном. Он также выразил намерение вести активные дипломатические контакты с Китаем и Россией на основе тесн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РК и США.

В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обсуждается повышение пенсионного возраста

Южнокорейско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подняло тему повышения пенсионного возраста. Недавно вице-премьер Хон Нам Ги заявил, что настало время обсудить этот вопрос. Уже в этом месяце власти объявят результаты первого обсуждения.

Если пенсионный возраст вырастет с нынешних 60-ти до 65-ти лет, то коэффициент демографической нагрузки сократится. Сейчас он составляет 20,4 человека, а будет 13,1 человека. То есть, на каждые 100 трудоспособных будет приходиться 13,1 пенсионера. Продолжение экономической активности пожилых людей позволит увеличить потребление и налоговые поступления. Поэтому во многих развитых странах идут в этом направлении. Большие опасения вызывает конфликт между поколениями на рынке труда, а также вероятность увеличения бремени компаний на оплату труда. Пенсионный возраст в 60 лет был введён лишь три года назад. В этой связи многие считают преждевременным говорить о дополнительном повышении планки. В настоящий момент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ассматривает возможность изменения системы начисления зарплат с учётом производительности и навыков людей пенсионного возраста. Однако сама идея повышения возраста выхода на пенсию была поднята на фоне больших социальных проблем, в числе которых слабость системы социального обеспечения пожилых людей и высочайшего уровня безработицы среди молодёжи. Поэтому нужно избрать очень осторожный подход к разрешению ситуации, учитывая все факторы и проводя тесный диалог с общественностью.

Naver стала лучшей по трём категориям на технической конференции по искусственному интеллекту

Южнокорейская корпорация Naver- оператор самого популярного в РК одноимённого портала, заняла первые места в международной конференции по компьютерному зрению и распознаванию образов CVPR – 2019, по трём номинациям. Это долгосрочная визуальная локализация, обработка видео и синтез голосовой речи. Также сотрудники компании представили содержание четырёх научных работ на тему обработки видео при помощи искусственного интеллекта. Генеральный директор Naver Labs Сок Сан Ок рассказал, что данное мероприятие стало отличной возможностью рассказать о видении и высоком уровне 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их разработок компании. Отметим, что Naver третий год подряд является платиновым спонсором данного мероприятия.

(RKI)

Сахалинским школьникам рассказали о творчестве Анатолия Кима

Акция "Голубой остров", приуроченная к 80-летию со дня рождения прозаика, переводчика и драматурга Анатолия Кима, прошла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ной универсальной научной библиотеке 24 июня.

Учащимся школы №1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сотрудники отдела краеведения рассказали о биографии и творчестве писателя, провели обзор его произведений.

Анатолий Ким родился в Казахстане. Вместе с семьёй он переезжал сначала на Камчатку, затем в Уссурийский край, а в 1947 году — на Сахалин, где прошли школьные и юношеские годы писателя. На острове Анатолий Ким стал заниматься живописью, писать верлибры — стихи, свободные от жёсткой рифмы и других признаков стихотворной речи, затем — прозу.

В одной из своих ранних повестей — "Лотос" — Анатолий Ким впервые в русской литературе подробно изобразил многоликие и трагические судьбы этнических корейцев. Он один из немногих писателей, который вводил в свои произведения упоминания о периоде Карафуто.

В 1989 году киностудия "Казахфильм" сняла по сценарию Анатолия Кима фильм "Мечь". Основу сюжета составили три рассказа из сборника "Голубой остров": "Мечь", "Невеста моря", "Сезонники". Ключевые фрагменты фильма были отсняты на сахалинском побережье Татарского пролива, в районе современного села Горнозаводск.

Сегодня имя Анатолия Кима хорошо известно в России и за рубежом. Его произведения неоднократно переводились и издавались в других странах: Англии, Испании, Италии, Германии, Дании, Финляндии и Америке, сообщает библиотека.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прошла международная конференция по истории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26 июня,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прошла седьмая международная конференция по сибирским исследованиям. Организаторы конференции: университет Халлим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и СахГУ.

Ежегодные конференции проводятся с 2013 года, поочередно, в Корею и на Сахалине.

Тема 7-ой конференции «Принципы мира и солидарности для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в честь столетия Первомартовского движения».

«На этой конференции была предпринята попытка охватить историю диаспоры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в контексте политики Российской империи и японского колониализма на Сахалине на рубеже XIX и XX веков», - подчеркнул директор Института российских исследований университета Халлим Чхве Тхе Ган.

«Участие в международной конференции даёт возможность понять и изучить ещё одну попытку построения принципов мира и сосуществования в Восточной Азии уже на Сахалине, который до сих пор хранит в себе «современные шрамы» и последствия имперского правления Японии», - отметил в своем вступительном слове директор Института японских исследований Университета Халлим Со Чжон Ван.

Приветствуя участников конференции, директор Института права, экономики и управления Сахалин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То Кен Сик сообщил, чт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между СахГУ и Институтом российских исследований университета Халлим длится уже более 5 лет. За это время помимо проведения международных научно-практических конференций осуществляется обмен делегациями, идет работа по подготовке и изданию серии монографий по экономике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на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Работа конференции прошла в трёх панельных секциях: «Прошлое, настоящее и будущее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Перемещение и память людей периода империи и постимперии: Карафуто и Сахалин» и «Устойчивое социально – экономическое развитие Сахалина». Докладчики обращались к истории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экономике и истори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Хотелось бы отметить выступления директора института Диаспоры (Р.Корея) Пак Бон Султ.научного сотрудника Сахалинского областного краеведческого музея Дин Юлии, руководителя бизнес-инкубатора Сахалинского фонда развития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ства Ким Ен Сун.

Участники с интересом слушали доклады исследователей из университета Халлим Ли Ген Ван, Чо Хен Гын, Вадима Слепченко и др. На конференции также выступила главный редактор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Бя Виктория Идюновна. Тема ее доклада «История корейской газеты Сахалина в контексте истории переселения корейцев на Сахалин».

Александра Федосова.
Фото: Ли Е Сик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получила санитарный самолёт

Винтокрылая машина Ми-8, оснащенная современным медицинским оборудованием, сегодня приземлилась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Прямо на борту можно проводить диагностику пациентов и оказывать специализированную медицинскую помощь. Предусмотрен в вертолете и модуль с системой жизнеобеспечения для транспортировки новорожденных.

- Это летающая скорая помощь, готовая в любой момент отправиться на задание, чтобы спасти человека. На борту есть современное оборудование, которое позволяет оказывать экстренную помощь. При этом вертолёт сможет садиться возле областной больницы, ведь при доставке пациента в тяжелом состоянии очень важно время. Речь может идти о срочной операции или других лечебных мероприятиях, при которых нельзя медлить, - сказал глава региона.

Сейчас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экстренную транспортировку пациентов авиацией преимущественно проводит региональное управление МЧС РФ. У службы есть профильные задачи и возможности использования ведомственного вертолета ограничены.

Поэтому по инициативе региональных властей в Сахалинскую область привлечен санитарный вертолет. Базироваться летающая неотложка будет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При этом вертолёт управления МЧС продолжит выполнять санитарные задания.

Поставка специализированной авиатехники - часть федерального проекта по организации парка воздушных судов Национальной службы санитарной авиации в регионах страны. Проект предусматривает и создание точек базирования вертолетов, а также посадочных площадок рядом с медицинскими центрами. Одну из таких планируется обустроить возле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ной клинической больницы, чтобы пациента можно было оперативно доставить в профильное отделение.

Федеральный проект развития санитарной авиации реализуется Минздравом и Минпромторгом РФ в рамках поручения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и. В конце прошлого года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распоряжением российск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НССА была определена единым поставщиком услуг санавиации в регионах страны.

На текущий момент в российские регионы поставлено более 60 машин с медицинским модулем. Служба уже приступила к выполнению задач в Санкт-Петербурге, Московской, Ленинградской, Свердловской, Новгородской областях, Республике Карелия и других регионах.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стала одним из первых регионов, в котором начинает работать Национальная служба санитарной авиации.

Более 18 миллиардов рублей инвестирует Минобороны в строительство на Сахалине

Об этом сообщил заместитель Министра обороны России Тимур Иванов, который с рабочим визитом прибыл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

В течение пяти лет планируется инвестировать на Сахалин более 18 миллиардов рублей. Считается, что этих денег вполне достаточно для создания необходимой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соответствующей самым высоким стандартам, предъявляемым к Вооруженным Силам, – заявил Тимур Иванов.

Визит замминистра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 начался с участия в церемонии закладки памятного камня в честь начала строительства нового военного госпиталя. Современный больничный комплекс из семи зданий разного назначения разместится на 32 гектарах. Специалисты военно-строительного комплекса уже на этапе проектирования учли особенности климата и географии острова: все сооружения смогут выдержать землетрясение силой до 10 баллов.

На сегодняшний день заложен камень в честь строительства нового госпиталя на 150 коек и нового воинского подразделения за счет передислокации частей, расположенных в других местах. Также предполагается строительство служебного жилья, и строительство нового культурно-досугового центра, который будет обеспечен всем необходимым. В планах продолжить работу по модернизации инженерного хозяйства и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37 военных городков, – сказал представитель ведомства.

В госпитале будут три основных корпуса: главный или лечебно-диагностический, административный с поликлиникой и инфекционный на 30 мест, а также пункт дезинфекции автотранспорта, гараж, два контрольно-пропускных пункта, аптека, хранилище для продуктов и даже свой клуб с библиотекой. Учреждение оснастят высокотехнологичным оборудованием. Лечиться в госпитале будут не только военнослужащие и члены их семей, гражданские лица тоже смогут проходить всестороннее диагностическое обследование, амбулаторное и стационарное лечение по системе ОМС. Первую очередь объекта планируют завершить уже в следующем году.

Особое значение имеет решение вопроса по военным городкам: Хомутово, Дачное, Третья Падь и Соловьевка. Жилые дома и коммунальные сети там в плохом состоянии и требуют скорейшего капитального ремонта, а сами городки – благоустройства.

Мы делаем пилотный проект. Четыре военных городка постараемся забрать в ближайший год. Сейчас договорились о восстановлении коммунальной и жилищной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в этих населенных пунктах, идет совместная подготовка городков к зиме, – отметил врио губернатора

С военным ведомством также принципиально договорились о совместном использовании многочисленных маяков. Изыскиваются возможности отреставрировать сооружения и организовать туристические маршруты на эти памятные места. Решается вопрос об использовании территорий, принадлежащих военным в портах.

Посетил Тимур Иванов и аэродром «Пушистый» в Корсаковском районе. Принято решение о том, что этот объект будет передан в муниципальную собственность. Здесь планируют заниматься военно-патриотическим воспитанием молодежи. Министерство обороны готово предоставить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се типовые решения, которые уже используются в других регионах, для создания парка «Патриот».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состоялся общегородской выпускной

21 июня на стадионе «Космос», в городском парке культуры и отдыха им. Гагарина, состоялся единый выпускной бал.

С теплыми пожеланиями к юным сахалинцам обратились мэр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Сергей Надсадin и ВРИО губернатора Валерий Лиморенко. В этом году южно-сахалинские школы выпустили более 1300 ребят.

– Наверное, все выпускники в этот день испытывают похожие чувства. Радостно от того, что мы преодолели такой большой путь, справились с экзаменами. Грустно от того, что теперь начинается совсем другая жизнь. Сейчас самое главное – поступить, я хочу стать врачом. Я хорошо сдала экзамены, поэтому верю, что все получится, – поделилась выпускница Екатерина Антонова.

По приглашению областных властей на выпускном балу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оказалась Алина Распопова из Арги-Паги Тымовского района. Дело в том, что школьница была единственной ученицей в своем классе, поэтому в родном селе для нее одной выпускной устраивать не стали.

– Исполнилась моя мечта – я была на концерте своего любимого рэпера Face. Сегодня целый день гуляем по прекрасному парку. Я, как Золушка, попала на бал, – поделилась Алина.

В праздничный вечер наградили золотых медалистов. В этом году сразу 50 южно-сахалинских выпускников продемонстрировали отличные успехи в учебе. Трое ребят получили 100 баллов на ЕГЭ по физике, географии, русскому языку. 12 школьников набрали 98 баллов по различным предметам.

Традиция проводить единый выпускной бал в областном центре зародилась четыре года назад. Но в этом году праздник впервые устроили не на площади Ленина, а в парке. Смена обстановки позволила развернуть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развлекательные площадки – танцевальную, банкетную, интерактивную.

Все ребята, собравшиеся на стадионе, дали клятву выпускника. Самым красивым моментом общегородского бала стал вальс выпускников.

Праздник продолжился танцевальной дискотекой. На сцену вышли группы из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и звезды российской эстрады. Свои пожелания, кого из известных исполнителей пригласить, высказывали сами школьники. В этом году юные сахалинцы захотели услышать вживую Дану Соколову. Также перед юными сахалинцами выступили коллектив Drum Show из Хабаровска, а также Rancat, Гривина из Москвы. Завершили единый выпускной бал фейерверком на озере Верхнем.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провели первый единый день диспансеризации

Теперь проверить свое здоровье в поликлиниках можно и по субботам. Первыми нововведение внедрили медицинские учреждения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а 29 июня пройти диспансеризацию в выходной день можно будет уже во всех районах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Ещё одно новшество – диспансеризацию теперь можно пройти и вечером в среду. В этот день пациентов будут принимать в кабинетах медпрофилактики до 20 часов.

- Чтобы охватить диспансеризацией и профилактическими осмотрами как можно больше жителей области, мы приняли решение о таком нововведении. Надеюсь, что число желающих пройти этот осмотр будет расти. Все мы понимаем, что выявление заболеваний на ранних стадиях существенно увеличивает шансы на эффективное лечение, - отметил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региональ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Антон Зайцев.

Анонсы о появлении единого дня диспансеризации размещались в СМИ, к информированию жителей области подключились и поликлиники областного центра, поэтому первые пациенты появились на пороге медучреждений в девять утра. По словам главы сахалинского минздрава Владимира Ющука, первый единый день диспансеризации показал, что востребованность есть, люди идут в поликлиники.

- Будем активно информировать жителей области и о такой возможности, и о пользе диспансеризации, - сообщил исполняющий обязанности министра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Жительница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Татьяна Киселева узнала, что пройти осмотр можно в субботу и решила не откладывать посещение поликлиники.

- Посетителей в этот день меньше, все внимание - нам.

Раньше пробовала и по будним дням на диспансеризацию приходиться, но мне кажется, что так удобнее, - поделилась она впечатлениями.

Пройти первый этап диспансеризации можно за 1,5 часа, объем обследований зависит от возраста. За это время специалисты могут выявить признаки онкологии, других опасных заболеваний, либо развеять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е опасения. При малейших подозрениях пациента направляют на дополнительное обследование.

Второй кинофестиваль телефильмов «Утро Родины» стартовал на Сахалине

Церемония открытия состоялась во дворце спорта «Кристалл»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Свидетелями яркого и запоминающегося шоу стали более тысячи жителей региона.

Приветствие участникам и гостям Второго Фестиваля телевизионных художественных фильмов «Утро Родины» направил Президент РФ Владимир Путин. Со сцены дворца спорта «Кристалл» его зачитал советник главы государства по вопросам культуры Владимир Толстой.

– Успешно стартовав в минувшем году, ваш форум оставил яркие, незабываемые впечатления как у участников, так и у многочисленных зрителей. Запомнился доброжелательной, непринуждённой атмосферой, насыщенной конкурсной программой, впечатляющими художественными, выставочными, просветительскими проектами. Сегодня «Утро Родины» вновь объединяет на своих творческих площадках известных российских режиссёров, актёров, сценаристов, демонстрирует лучшие телевизионные киноленты и сериалы, заряжает дальневосточников позитивной энергией и хорошим настроением. Уверен, что фестиваль пройдёт на подъёме, откроет новые имена, укрепит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е и личные контакты. Желаю вам удачи и всего самого доброго, – говорится в приветствии Президента.

От имени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к собравшимся обратился глава региона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 Именно у нас, на сахалинской земле, начинается Россия, начинается утро Родины. Мы одними из первых узнаем новости, погружаемся в события политической, общественной, спортивной и, конечно же, культурной жизни. Она у нас, кстати, отличается большим разнообразием.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регулярно проходят выставки, концерты, спектакли, многие другие мероприятия с участием звезд не только российской, но и мировой величины, – отметил врио губернатора. – Я искренне рад, что фестиваль «Утро Родины» органично вписался в эту богатую культурную палитру. Стал значимым событием для многих островитян и гостей нашего региона. Желаю его организаторам новых успехов, а гостям и зрителям – хороших впечатлений.

Фестиваль телевизионных художественных фильмов «Утро Родины»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проходит уже во второй раз. В конкурсной программе 2019 года участвуют 12 сериалов. Среди них - «Садовое кольцо», «Звоните ДиКаприо», «Спарта», «Динозавр», «Ненастье», «Обычная женщина», «Домашний арест», «Годунов». Это проекты, выходившие на Первом канале и телеканалах холдинга «Газпром медиа». Впервые в этом году со своими картинами в фестивале принимает участие телекомпания НТВ.

По итогам рассмотрения киноворот жюри присудит призы в 10 номинациях. В частности, будут выбраны лучшие фильмы, режиссерские и операторские работы, мужские и женские роли, сценарии.

В этом году судейскую коллегию возглавил «оскароносный» Владимир Меньшов. Публика, собравшаяся на церемонию открытия фестиваля, поприветствовала его бурными овациями.

– Телевизионное кино сегодня выходит на новый уровень. Актеры, которые ранее избегали сериалов, ищут возможность сниматься в них. В телевизионном кино есть возможность говорить о серьезных вещах в спокойной атмосфере. Думаю, что в рамках фестиваля увижу много интересного. Обязуюсь судить фильмы честно и дать награду лучшему, – отметил Владимир Меньшов.

Президент фестиваля продюсер, актер и режиссер Сергей Жигунов отметил, что Сахалин сегодня вызывает повышенный интерес у кинематографистов, и многие, без лишнего разговора, сразу соглашаются на поездку сюда.

В своем выступлении руководитель фестиваля остановился на трех моментах.

– Первое – акцию «Великое кино Великой страны», проведенную накануне фестиваля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поддержали 900 городов РФ и больше 100 тысяч человек. Мы сделаем это событие ежегодным. Второе, что хочу отметить – впервые в истории в конкурсном показе участвуют фильмы, премьеры которых прошла в Интернет-пространстве. Это яркие и мощные картины. Мы с вами – свидетели революционного события. Со следующего года наш фестиваль потеряет приставку теле- и станет фестивалем многосерийного художественного кино. Третье – у нас прекрасное жюри, прекрасное кино, прекрасный зритель и нам ничего не мешает отлично провести этот фестиваль, – сказал Сергей Жигунов.

Все основные мероприятия фестиваля пройдут в комплексе «Кристалл»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Кроме того, будут задействованы и две другие площадки – киноконцертные залы «Октябрь» и «Комсомолец».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경기민예총 대표단 사할린 방문

경기민예총 예술인들 사할린을 방문, 위로하다

사단법인 경기민예총 소속 예술인 26명이 지난 6월 18일부터 22일까지 4박5일 동안 유즈노사할린스크를 방문했다.

로 이루어졌다.

예술인들은 한인문화센터를 방문하고 사할린 한인 이 중징용광부 피해자 추모비와 사할린 희생자사망동포위령

제목으로 이루어진 이번 공연에서 한인문화센터 풍물 동아리와 무용단, 전기중 서예가의 붓글씨 퍼포먼스가 눈길을 끌었다. 정영미 무용가는 강



해외문화예술탐방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이번 사할린 방문은 단순히 여행 목적이 아니라, 지난 역사 속에서 국가가 국민을 책임지지 못한 데 대한 죄책감을 민간 차원에서 조금이라도 덜어보고자 하는 마음과 우리의 역사를 제대로 알고 바로잡아 우리 후손들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는 목적으

로 이루어졌다. 예술인들은 한인문화센터 풍물 동아리와 무용단, 전기중 서예가의 붓글씨 퍼포먼스가 눈길을 끌었다. 정영미 무용가는 강

이번 방문의 정점은 가가린공원에서 진행된 예술공연이었다. <아득한 그리움은 꽃으로 피어나고>라는

제 정용의 억울함을 춤으로 표현하며 관객이 참여하는 신발투척 퍼포먼스를 벌였다. 풍물 공연에 이어 한인과 러시아인, 남녀노소 어울려 손에 손잡고 강강술래를 하며 화합의 대미를 장식했다. 사할린 방문 마지막 날엔 한인 묘지를 방문하여 현주를 하며 영령들을 위로했다.

바쁜 일정을 쪼개어 주명수, 조성용 사할린 한인 화가와의 만남을 갖고 경기민예총과 사할린 예술인들의 지속적인 우의와 관심을 다짐하기도 했다.

이성호 경기민예총 이사장은 "사할린 한인들의 한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 어려움을 이기고 끈기있게 사할린을 지켜온 선조들의 마음에 경의를 표한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박설희 시인)

(사진: 경기민예총 제공)

경인여자대학교 학생 20명, 사할린 학생들을 위해 재미있는 한국어 수업 펼쳐

지난 26일(수) 사할린한국교육원(원장 김주환)에서 중고등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한국문화를 통한 한국어 수업이 펼쳐졌다.

강사는 한국 경인여자대학교 자원봉사자 20명이다.



1992년 인천에 개교된 경인여자대학교는 28개 학과가 있고 5000명 정도 공부하고 있다. 대학교 내 있는 글러벌국제교육원에서는 20개국 학생 300여 명이 한국어교육을 받고 있다. 세계시민교육 차원에서 매년 여름과 겨울에 학생 200명씩 해외 봉사자로 나간다. 주로 동남아(베트남, 중국 등)에 갔었는데 올해 처음으로 러시아 사할린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봉사활동을 펼치게 되었다.



경인여자대학교 류화선 총장은 "금번에 사할린에 처음으로 경인여대 해외봉사를 실시했는데, 의의가 큼니다. 사할린은 일제시대에 한국인 징용이라는 아픈 역사가 있었고, 지금도 한국인 후손이 많이 계시면서 역사와 전통을 지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로도 한국 경인여대와 사할린 한국교육원 및 교육기관과의 협력 아래 해외 봉사를 꾸준히 진행하고자 합니다." 라고 표명했다.

지도교수인 윤세민 영상방송학과 교수에 따르면 사할린 학생들은 4그룹(중학생 반 2개, 고등학생 반 2개, 각 반 15~20명씩)으로 나누어 4가지 수업프로그램을 통해 재미있고, 자연스럽게 한국말을 익히게 된다고 했다. 하루에 4시간, 총 5일간 프로그램이다. 한국 대학측은 이와 같은 수업이 사할린 학생들의 한국어 배우기에 도움이 될 거라 전망했다.

"금번 사할린 해외 봉사팀은 한국문화체험, 한국관광명소, K-pop, K-drama 등 총4개팀으로 구성돼, 각 프로그램 속에서 러시아 청소년들이 자연스럽게 한국의 말과 글, 또 한국문화를 체험하며 익히게 하였습니다. 특별히 해당 분야에 재능을 가진 대학생 선생님을 선발해서 왔습니다. 이를 통해 양국의 청소년들이 자연스럽게 교제하며 친선을 이어갈 거라 봅니다." 라고 윤세민 지도교수가 설명했다.

(취재: 글/배순신 기자, 사진/이예식 기자)

이 모 저 모

(2면의 계속)

사할린주민들, 진드기에게 당해

러시아 소비야보호감시청 사할린지부 사이트에 6월 17일-23일간 전염병 현황을 게시했다.

25번째 주간에 주민 97명이 진드기에게 물렸다. 그중 17세 미만의 어린이가 물린 건수는 15건이다. 가장 많이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46명이 앓았고, 코르사코브구역에서 13명, 락스코예 구역- 7명, 아나와 구역 6명, 네웰스크구역 5명, 우글레고르스크구역 4명, 마카로브 구역 4명, 알렉산드롭스크-사할린스키 및 오하 구역 각각 3명, 포로나이스크구역과 유즈노쿠릴스크구역에는 각각 2명, 돌린스크·쿠릴스크·노글리키·스미르니호·토마리·홈스크 구역에는 각각 1명으로 나타났다.

러시아소비감시청 주관리국 정보에 따르면 일주일 만에 성인 중 진드기에게 물려 보렐리아균에 감염 된 사실은 6건이 기록되었다.

Сахалинцев одолевают клещи

Управление Роспотребнадзора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а своем сайте представило картину инфекционной заболеваемости с 17 по 23 июня.

За 25-ю неделю атаке клещей подверглись 97 человек, в том числе 15 укусов получили дети до 17 лет. Наибольшее количество пострадавших от кровососущих проживает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 46 человек. В Корсаковском районе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о 13 обращений, в Тымовском — 7, в Анивском—6, в Невельском—5, в Углегорском — 4, в Макаровском — 4, в Александровск-Сахалинском и Охинском по 3, Поронайском и Южно-Курильском по 2, Долинском, Курильском, Ногликском, Смирныховском, Томаринском и Холмском районах — по 1 случаю.

По оперативным данным управления Роспотребнадзора, за неделю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о 6 случая заболевания клещевым иксодовым боррелиозом среди взрослых.

사할린주 및 러시아 언론기관 자료들에서)

러시아산 생고기 및 햄, 소시지, 육포 등 반입 제한 안내

잠깐!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해외 가축전염병의 국내유입 방지를 위해

해외여행 후 입국 시 생고기 및 햄·소시지·육포와 같은 관련 제품은 반입이 제한되며,

부득이하게 소지하신 경우 여행자 휴대품신고서에 체크하고 공항·항만에 주재하는 검역본부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9년 6월 1일부터,

휴대한 동물검역 대상물품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 부과

※ 외국인의 경우 입국금지, 체류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 : 돼지고기 및 관련 제품
· 1회(500만원) → 2회(750만원) → 3회(1,000만원)

○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의 돼지고기 이외 제품 및 기타 국가
· 1회(100만원) → 2회(300만원) → 3회(500만원)

농림축산식품부

우리 정부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해외 가축전염병의 국내유입 방지를 위해

해외여행 후 입국 시 생고기 및 햄, 소시지, 육포와 같은 관련 제품의 반입이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왼쪽 그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최근(2019.4.18.) 연해주 나호트카시 "레스나야 오토라다"(블라디보스톡 기준 북쪽 120km소재)사냥터에서도 야생 멧돼지 사체에서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발견됨에 따라 여행객, 극동지역 진출 기업종사자, 교민들께서는

동 지역과 가축질병 발생지역으로 여행은 가급적 피해주시고, 축산농장 방문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 구제역 발생지역(2019.1) : 연해주 미하일로프스키(블라디보스톡 북쪽 120km), 스파스크(북동쪽 230km)

주유즈노사할린스크한국영사출장소

26회 사할린동포회생자 추념 행사

용서는 하되 절대로 잊지는
말아야 한다

(2면의 계속)

이제 와서 74년 전에 있었던 일을 말하는 것은 일본을 욕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지난 역사를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역사를 잊어버리고 산다는 것은 오늘을 맹목적으로 살아가고 내일에 대한 희망이 없는 "삶"이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용서는 하되 절대로 잊지는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원평비전이라, 즉,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에 대비부터 하라라는 뜻을 절대로 잊지마시고 잘 새겨두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곳에서 돌아가신 동포 영령님들이시여 극락정토에서 이고득락(괴로움에서 벗어나 즐거움을 누림)하시여 명복이 가득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렇게 사할린 한인들의 아픔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말씀...

이번 추념행사에는 사할린주한인협회, 주노인회, 주이산가족협회, 주여성회 관계자와 함께 한국에서 온 사회·문화 활동가들이 참여했는데 사할린 측에서 보다 더 많은 동포 특히 젊은이들이 이런 행사에 더욱더 많이 참가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국대표단은 다음날, 27일, 포자르스코예(미주호)촌 근처 27일 한인피살자 추념비를 찾아 참배했다.

(배순신 기자)

쿠진 교수, 한국 원광대 컨퍼런스에
초빙되어 발표

학술회의 주제는 <동북아시아 지역 공동체 기억과 전망: 초국경의 상상>이었다. 주최 측에 따르면 이번 학술회의는 역사·문화·종교·경제·사회 방면에 나타난 초국경적 5 개의 모습들을 고찰함으로써, 힘의 논리에 속박되어 왔던 동북아 지역주의의 배타적 기억을 넘어 탈영토화·초국가화의 맥락에서 지역공동체의 가능성을 새롭게 타진하기 위한 것이었다.

쿠진 교수는 <하산 호수 근처 소일 (蘇日) 국경분쟁의 진실>테마로 발표했는데 이보다 한국교사들은 사할린 동포의 역사와 문제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었다고 했다. 그는 약 1시간 동안 한국 측에서 쏟아진 질문에 답변했으며 사할린 한인문제에 관심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한 번 이 주제로 학술회의를 갖는 것도 검토해 달라는 부탁을 했다고 쿠진 박사가 전했다.

(본사 기자)
(사진: 아.쿠진 제공)

ПОЧЕМУ С НАМИ УДОБНО?

Большой выбор заведений

Сортировка заведений по отзывам и рейтингу

Удобная разбивка по категориям

Популярные блюда

Информация о скидках и акциях в заведения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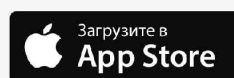
Заказы запоминаются, их легко повторить

ПОПРОБУЙТЕ

НА САЙТЕ eda.sakh.com

Десктопная версия

Мобильная версия

ИЩИТЕ ПРИЛОЖЕНИЕ eda.sakh.com

реклама

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

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

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с.з. (주필) 배 워토리아

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 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

Отпечатано в О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6-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1-00

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 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53740
Тираж 1300 экз.

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Н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